

金星社

대한페인트·잉크

# 디지털방식 VTR 개발 저공해 무독성 잉크 생산

### ▲ 대한페인트·잉크

대한페인트·잉크가 국내 처음으로 무공해·무독성잉크인 「그린 잉크」를 개발, 본격 생산에 나섰다.

그린잉크는 대두유를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용재인 솔벤트함유량을 기본 잉크의 평균 30%에서 5%로 낮춘 무공해제품이다. 이에 따라 그린잉크는 환경보호와 함께 작업자의 건강보호에 도움이 되고 지면진조속도가 빨라 작업효율이 증대되는 장점을 갖고 있다.

### ▲ 金星社

금성사가 디지털방식의 슈퍼 VHS-VTR을 개발, 이달 말부터 시판한다.

금성사는 89년 8월부터 2년간 20여명의 연구진과 50억원의 개발비를 투입, VTR중 세계최고의 화질로 인정받고 있는 디지털 방식의 VTR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VTR은 수평해상도가 4백본으로 기존 VTR의 2백40본에 비해 2배가량 높아 옷의 질감까지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색상이 뚜렷하다. 또 하이파이 사운드를 채용, 음성도 고급오디오의 수준을 갖추고있는 것이 특징이다.

### ▲ 油公

(주) 유공은 기존 유연휘발

유보다 공해물질을 50%이상 줄인 저공해 유연휘발유를 개발 시판에 나섰다.

유공이 1년여의 연구기간을 거쳐 개발에 성공한 저공해 유연휘발유는 방향족과 벤젠의 함유량이 적어 벤젠·벤조

고있는 합산소불질인 MTBE (옥탄가스향상제)를 포함하고 있어 대기오염 방지는 물론 엔진성능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 現代電子

현대전자는 자동차에 장착되어있는 전자제어장치와 전기전자 부품을 진단하는 테스터기를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서비스와 공동으로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대형(모델명 슈퍼닥터) 소형(슈퍼팻) 두가지 모델의 테스터기는 지난 1년간 1억5천 만원을 들여 개발했다. 현대는 이 테스터기의 국내수요가 앞으로 크게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내수는 물론 수출도 추진하고 있다.

### ▲ 코오롱

코오롱은 컴퓨터를 활용한 제조공정으로 천연섬유의 단면조직과 동일한 신태섬 폴리 에스테르絲를 개발, 본격 생산에 나섰다.

이번에 개발된 MDY(Multi Diverse Yarn)絲는 원사의 단면모양이나 굵기 伸度 수축률 등 각종 물성과 구조가 천연섬유 처럼 불규칙하게 형성되도록 컴퓨터로 조절함으로써 그동안 모방이 불가능했던 천연섬유 고유의 질감 및 쾌적성을 갖도록 했다. <♣>

유 공 現代電子 科오롱 新섬유 폴리에스테르絲 개발 자동차 電子장치 테스터 개발 저공해 유연휘발유 시판

피렌 등 인체에 유해한 배기가스를 감소시켜 유연휘발유에 의한 대기오염을 방지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외에서 각광을 받